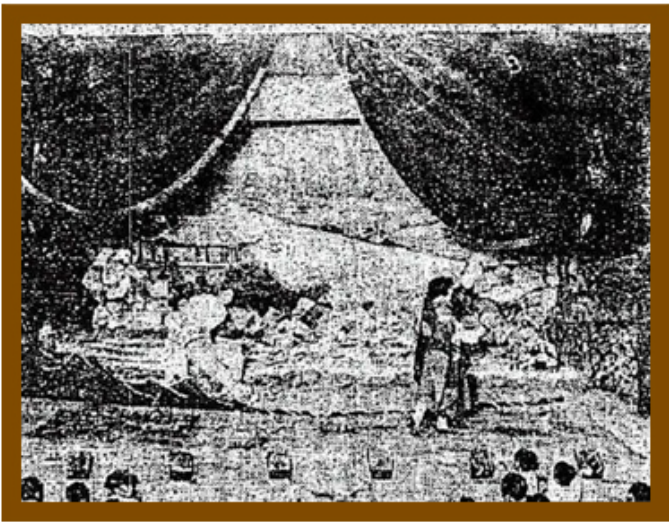


무대미술가 원우전



연극 '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 무대장치(1925.5.30), 원우전



연극 '조롱에 든 새' 무대장치(1925.6.29), 원우전

원우전(원우(1903~1970))은 인천 출신의 무대미술가이다. 그는 19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무대미술에 뛰어들었다. 원우전은 1923년 인천에서 열린 '연극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무대미술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의 무대미술이 단순히 배경을 꾸미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원우전은 “무대미술은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연극의 내용을 보조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우전은 1923년 인천에서 열린 '연극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무대미술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의 무대미술이 단순히 배경을 꾸미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원우전은 “무대미술은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연극의 내용을 보조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우전은 1923년 인천에서 열린 '연극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무대미술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의 무대미술이 단순히 배경을 꾸미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원우전은 “무대미술은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연극의 내용을 보조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